

'잉꼬' 이-이 부부...상금만 1억6783만 원

(이태희-이주영)

(포상금 제외)

이태희·이주영 부부 53승 최고 활약
심상철·박설희 부부 49승으로 2위
김민천·김민길 형제 나란히 22승씩

현재 경정은 총 154명의 선수가 활동하고 있다. 이중 부부, 형제, 친인척 선수가 9쌍이다. 이들은 서로의 장단점을 모니터링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기량 향상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태희(A1 1기), 이주영(A1 3기) 부부의 활약이 단연 돋보인다.

두 사람은 9쌍 중에 지난 시즌 가장 많은 우승(53회)과 상금(포상금 제외)인 1억6783만7000원을 기록했다. 이태희가 1차 27회(2018시즌 다승 6위), 2차 27회, 3차 22회를 기록했고 이주영은 1차 26회(다승 7위), 2차 22회, 3차 17회의 성적을 거두었다.

지난 시즌 상금왕 심상철(A1 7기)과 박설희(A2 3기) 부부도 함께 우승 49회와 상금 1억3927만6000원을 기록했다. 심상철이 40승(다승 2위)과 상금 1억1280만1000원으로 절정의 활약을 펼쳤다. 다만 상대적으로 박설희의 부진이 조금 아쉽다.

김민천(B1 2기), 김민길(A1 8기) 형제도 인상적인 성적을 올렸다. 두 사람이 똑같이 22승씩 합계 44승을 거두었다. 상금합계는 1억1952만8000원이다. 김민천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준우승 이후 2017년



16승으로 가장 부진한 시즌을 보냈다. 하지만 2018년에는 평균 스타트 0.25초에 1차 22회, 2차 19회, 3차 8회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동생 김민길도 2013년 13승 이후 꾸준히 두 자리 승수를 기록하며 제몫을 해주고 있다.

막내 기수인 조규태(B1 14기), 조승민(B2 15기) 형제도 빼놓을 수 없다. 14기에 함께 응시했지만 형 조규태만 합격해 동생 조승민은 다음해 15기로 입문했다. 김민천-김민길 형제 이후 7년 만에 형제 경정선수의 탄생이다. 조규태는 2017년 1차 3회, 2018년 1차 5회에 이어 올해 벌써 1차 2회를 기록하며 갈수록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승민도 지난시즌 1차 4회, 2차 2회, 3차 2회로 신인으로는 나름 준수한 성적을 거뒀다.

한편 이들 외에 부부 경정 선수로 권일혁(6기)과 안지민(6기), 박진서(11기)와 김희영(11기), 오세준(1기)과 이시원(3기), 박준호(10기)와 임태경(10기)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김계영(6기)과 손제민(6기)은 친인척 관계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 현재 경정에서 활동하는 부부, 형제, 친인척 선수는 모두 9쌍으로 서로 격려하며 시너지를 내고 있다. 이 중 지난 시즌 가장 많은 우승(53회)과 입상 상금(1억6783만7000원)을 기록한 이태희(왼쪽)와 이주영 부부.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 일요일 첫 경주 30분 앞당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3월 3일부터 경륜 일요일 경주를 기존 12시 20분에서 30분 앞당긴 11시 50분에 시작한다. 입장시간도 11시에서 10시 30분으로 앞당길 예정이다. 경주 간격을 추가 확보해 고객의 추리 시간을 확대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일요일 마지막 경주 시간은 동일하며 금·토요일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12시 20분에 경주가 시작한다.

경정경륜 '삼쌍승식' 특별 경주만 발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3월 6일 경정 경주부터 경륜·경정 삼쌍승식을 특별 경주에만 발매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고배당 승식 제한 등 경륜·경정 사업 건전화 정책과 고객의 기타소득세 부담 과중, 추리시간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랑프리 경주 및 대상 경주 등 특별경주만 제한적으로 삼쌍승식을 발매하며 삼쌍승식이 발매되는 특별경주는 사전 공지할 예정이다. 단승, 연승, 복승, 쌍승, 삼복승, 쌍복승은 기존대로 발매된다. 정용운 기자

'삼복승 요정' 박민오, 특선급 판도 혼돈다

우성식·문영윤도 인상적 활약
강급자·신인 생존경쟁도 치열

승·강급을 맛보며 시즌을 시작한 경륜 선수들이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꾸준한 훈련의 효과를 보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성적을 내고 있는 선수도 있다. 각 급별 승급자와 강급자들을 통해 시즌 초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 특선급 승급자 3인 '삼복승의 요정'

특선급에 승급한 선수들은 대체로 기량 차이를 확연하게 보이며 조기 강급을 당하

거나 기존 선수들에게 끌려 다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반기에 특선급으로 올라온 박민오, 우성식, 문영윤은 다른 모습이다. 특히 지난해 연말 그랑프리에서 깜짝 활약을 펼친 박민오는 낮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마크와 투입력을 바탕으로 간간히 삼복승 배당을 내고 있다. 우성식과 문영윤 역시 끌어내기를 통해 끌려 다니던 모습에서 벗어나 3위권에서 경쟁력 있는 활약을 펼쳐 인상적이다.

● 강급자들 희비 교차하는 우수급

24기 신인 공태민과 박진영, 오기호가 나름 활약하고 있지만 결승에서 번번이 강급자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강도, 엄

정일, 고병수 등 당장 특선급에 가더라도 손색없는 활약을 보여줄 선수들이 대부분 이어서 신인들이 이들과 겨루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강급자 중에서 아쉬움이 많은 선수는 최순영, 홍석한이다. 최순영은 우수급으로 손꼽힌 경주에서 앞선을 제압하지 못하거나 후미 선수에게 역전을 허용하며 우승을 자주 놓쳤다. 신인시절 이후 처음으로 우수급으로 내려온 '500승의 사나이' 홍석한도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 착외를 기록하는 등 불안한 모습으로 특선급 재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 강급자 vs 신인들, 치열한 선발급

올해 초반 해도 기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신인들이 서서히 강급자들과 기존 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광명 기준으로 올해 열린 선발급 여섯 번의 결승에서 신인이 다섯 번이나 우승했다. 지역 선배들과 함께 레이스를 진행하기 보다 자신의 기량을 확인하기 위해 독자 승부를 펼치는 선수나 동기생들과 힘을 합쳐 선배들을 따돌리는 선수도 보인다.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하는 신인들과 강급자들 간의 대결이 점점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명품경륜 승부사' 이근우 씨는 "특선급 승급자들은 일요일경주에선 눈여겨볼만하다. 몸 상태가 좋아 보이는 선수들은 삼복승 정도 노려볼 수 있다"며 "우수급과 선발급은 강급자와 신인들 간의 격돌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특선 강급자나 신인을 맹신하기 보다 금·토 예선의 시속이나 몸 상태를 체크해야 결승전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용운 기자

환상특급!
바이칼호수 환바이칼 열차와
알훈섬 5일

5월 20일 출발

마중여행사 02-730-2270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배구팬 54% "GS칼텍스, KGC인삼공사전 우세 전망"

배구토토 스페셜 24회차 중간집계
KGC인삼공사 승리 예상 46% 팽팽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www.ktoto.co.kr)는 20일 열리는 2018~2019 V리그 여자부 경기를 대상으로 한 배구토토 스페셜 24회차 투표율 중간집계 결과, GS칼텍스-KGC인삼공사(2경기)전에서 국내 배구팬의 54.03%가 홈팀 GS칼텍스의 근소한 우세를 전망했다고 19일 밝혔다.

원정팀 KGC인삼공사의 승리 예상은 45.97%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최종 세트스코어에서는 3-0 GS칼텍스 승리 예상(19.0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세트 점수차 예상에서는 2점차(32.69%)가 1순위로 집계됐다.

현재 GS칼텍스는 승점 45를 기록하며 전체 4위에 올라있지만, KGC인삼공사는 승

점 18로 최하위인 6위에 머물고 있다. GS칼텍스는 봄 배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3위(승점 46)인 IBK기업은행을 승점 하나 차이로 뒤쫓는 중이다. 승수가 많은 상황에서 남은 4경기를 잘 치르면 봄 배구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한 GS칼텍스다.

반대로 KGC인삼공사는 15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지난 3~5라운드에서 KGC인삼공사가 쌓은 승점은 단 2뿐이다. 고민지, 최은지, 한지수 등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부상에서 돌아온 알레나가 제 컨디션을 찾지 못하면서 이렇다 할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시즌 5차례 맞붙은 양 팀의 상대전적에서도 GS칼텍스는 4승1패를 기록해 우세한 모습을 보였다. 첫 맞대결이었던 지난해 10월 31일 경기가 KGC인삼공사가 승리한 유일한 게임이었다. GS칼텍스는 최근 부상을 당한 알리의 전력 공백이 최대 불안요소로 꼽히고 있다.

한편 현대건설-IBK기업은행(1경기)전에서는 홈팀인 현대건설의 승리 예상(55.95%)이 IBK기업은행(44.05%)보다 높게 나타났다. 세트스코어에서는 3-2 현대건설 승리(20.02%) 예상이 1순위를 차지했다. 1세트 점수차의 경우 6점차(26.07%)가 가장 높았다.

배구토토 스페셜은 국내외 남녀 배구경기의 홈팀 기준 최종 세트스코어와 양 팀의 1세트 점수차를 맞히는 게임이다. 세트스코어 항목은 홈팀 승리인 3-0, 3-1, 3-2와 원정팀 승리인 0-3, 1-3, 2-3 등 여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1세트 점수차 항목은 2점차, 3점차, 4점차, 5점차, 6점차, 7점차 이상으로 제시된다.

이번 배구토토 스페셜 24회차 게임은 1경기 시작 10분 전인 20일 오후 6시 50분 발매가 마감되며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토토 홈페이지(www.sportstoto.co.kr) 및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타맨(www.betma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현, 1라운드 언더파 칠 것" 67%

골프토토 스페셜 3회차 중간집계

국내 골프팬들은 혼다 LPGA 타일랜드 1라운드에서 박성현의 언더파 가능성을 가장 높게 내다봤다.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는 21일 태국 춘부리에서 개막하는 혼다 LPGA 타일랜드 1라운드를 대상으로 한 골프토토 스페셜 3회차에서 전체 참가자의 67.40%가 2번 선수인 박성현의 언더파 활약을 예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61.26%를 획득한 5번 유소연과 함께 1번 이민지, 3번 브룩 헨더슨이 각각 57.80%와 52.70%를 얻어 과반수의 투표율을 얻었다. 이어 김세영(48.82%), 카를로 타 시간다(47.09%), 하타오카 나사(44.97%)가 그 뒤를 따랐다.

지정 선수별 1라운드 예상 스코어에서는 이민지(22.18%)가 3~4언더파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박성현(34.68%)과

유소연(28.14%), 김세영(25.44%), 카를로 타 시간다(24.87%), 브룩 헨더슨(22.37%)은 이보다 낮은 1~2언더파에서 1순위를 차지했다. 반면, 하타오카 나사는 유일하게 1~2오버파에서 29.6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토토 스페셜 게임은 지정된 5명 혹은 7명의 프로퍼의 1라운드 타수대를 맞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타수대는 5언더 이하, 3~4언더, 1~2언더, 0(이븐), 1~2오버, 3오버 이상 등 총 6개 구간으로 구성되며 1라운드 최종 타수대를 모두 맞힌 사람에게만 해당 회차의 배당률에 배팅금액을 곱한 만큼 적중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골프토토 스페셜 3회차 게임은 20일 오후 9시 50분 발매를 마감하며, 1라운드 가 모두 종료된 후에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한편 골프토토 게임의 경우 선수의 개인 상황과 현지사정으로 인해 대상선수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지정선수를 확인해야 한다.